민족의학 생존권 투쟁 75일
교수, 수업재개 결정 아쉬움

88년 아무것도 모르던 신입생 시절, 그렇게 갈망하고 꿈에 부풀었던 그 시절이 문득 떠 오른다. 한의학을 무지 사랑하자고 눈물도 흘려 보았다. 제발 우리를 것밟지 말라고 목놓아 울며 97일동안 파업을 했던 것이다. 맹인안마사의 안마보조 수단으로서 침자극 허용을 놓고 우리는 우리 학문을 지키고자 싸운 것이다. 무지한 보사부의 편파 행정에 대해 말이다.

이제 어느 덧 5년이란 시간이 흘러 졸업반이 되었다. 쓴웃음이 절로 나온다. 다시 이러한 상황이 재현될 줄이야…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를 내걸고 우리의 "민족의학의 생존권"을 내걸고 피로 맹세한지 다시 75일… 모두를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가치관의 혼돈에 빠진 우리의 모호한 현실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한다. 새벽의 반짝이는 별빛을 바라보는 두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린다.교수님들은 월요일(6월 7일)부터 무조건 수업재개를 하신다고 하신다. 정말 무조건 거기에 끼어들고 싶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이제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기고 교수님과 열띤 토론을 하면서… 지금껏 쌓여 있는 강의실의 먼지를 털어 버리고 싶다.

하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 버렸다. 보사부의 기만적인 타협에,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양 행세하는 이들에게 더이상 참을 수 만은 없다. 우리의 1년의 희생은 그만한 대가를 치룰 것이다. 우리 4천 한의학도는 이제 벼랑에 섰다. 더이상 결코 물러설 수 가 없는 것이다. 필사즉생(必死卽生!)

이 투쟁이 이제 우리의 희생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가만히 눈을 감고 우리의 신세벽을 떠올려 본다. 우리는 정말 강의실로 돌아가고 싶다.

한 동 하
(한의본·4)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한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하이텔(ID):jang 3 천리안(ID):choerha

'고황' 세련된 비판 아쉬움
—'한총련 건설…'기사를 읽고

며칠전 우리학교의 교지라고 하는 고황지를 읽은 적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한총련 건설과 좌파의 대응'이라는 어느 자유기고가의 의견에 감정적으로 분노하다가 학우들과 함께 의견을 논해보고자 펜을 들었다. 주된 논제의 흐름은 '전대협을 계승한 한총련은 주사파 학생운동의 정치조직이고 조선노동당에 충성하는 대중조직'으로 매도하는 한편 마지막에는 비판의 대상을 적으로 규정 하는 것이다. 도대체 어러한 내용이 과연 어디에 근거하며, 어떤 는리에서 흘러나오는 망언인지 한탄을 금할 길이 없다. 87년 민주화투쟁 당시 군사독재정권의 독재를 끝장내고 온 국민의 힘으로 민주정부를 세우고자 선봉대로서 조직된 전대협은 백만청년학도의 협과 지혜로 대학인으로서의 기회주의와 개인주의를 배격하고 조국과 민족의 대의명분으로 자신을 아끼지 않고 헌차게 투쟁하며 전실되었고, 6년여사를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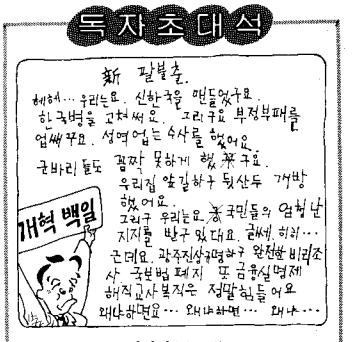
여기에서 그간의 투쟁일변도의 노선에서 좀더 많은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며 전면적인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로 한총련으로의 발전을 가져온 것이다. 앞에서 말한 자유기고가의 장님같은 발언은 전대협의 학원자주화 투쟁, 반파쇼투쟁, 민주화 투쟁으 조국통일투쟁의 자주적 기운을 무시한 채 골방에서의 7,80년대 운동의 고립성을 벗지 못한 때문은 발상이다. 조국의 부름앞에 나서는 청년의 당찬 패기를 무시하고 썩은 이론과 사상을 강조하여 대중들에게 '회의'만 가져다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 한총련과 4천만 국민은 김영삼 문민정부의 개혁을 주시하며 껍질뿐인 정부의 허상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놓으려 하고 있다. 좀더 통큰 단결과 다양한 투쟁전술로 한반도의 진정한 민주정부와 조국통일의 정당성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에 현실적인 대안있는 비판만이, 또 그것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비판이 필요할 것이다.

식민지 남한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한총련의 자주적인 투쟁을 매도하는 것은 백만학도와 4천만 민중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이제 좀더 세련되고, 학생운동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사상논쟁을 떠나, 문열과 반목을 떠나 온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투쟁을 고민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김 운 회
(국문·4)

독자초대석



이병하(미교·3)

봉사동아리의 활동 미흡
본말전도 우려 낳기도

대학생활에서 학문의 정진외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동아리 활동일 것이다. 물론 우리학교에도 많은 동아리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봉사분과가 상당한 수를 차지한다.

봉사분과에 속한 동아리들은 지체부자유자나 고아원, 양로원 방문 등 봉사활동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봉사동아리에서는 지체적인 봉사계획을 세워놓고 그에 따라 활동을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활동이 얼마만큼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봉사동아리에 가입하려는 학생들중에는 진실로 그러한 일을 하고싶어서 가입하는 학생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건전한 목적에서 활동하는 학생외에 단지 동아리에 모여 여러사람과 놀아보자는 학생들 또한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봉사동아리는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서로 모여 노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물론 그렇다고 봉사활동을 전혀 않는 것이 아니다. 단지 주객이 전도되었을 뿐, 이 목적이 있어 들어온 학생들까지 활동에 장애를 받고 있다.

우리는 대학인이다. 지성인이다. 자신이 진실로 헌신적인 봉사의 마음이 없다면 알아서 동아리를 떠나 봉사동아리를 원래의 목표에 맞는 정상적인 동아리로 만들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심 상 규
(염교·1)

동정

교수동정

현종민 교수 방중

【서울캠퍼스】▲차성호(의대·의학)교수=오는 6월21일부터 7월5일까지 학회참석차 프랑스방문

【수원캠퍼스】▲현종민(사회대·국제관계학)교수, 오성기(산업대·식품가공학) 교수=오는 7월20일부터 28일까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외연수로 중국방문 ▲채옥삼(공대·전산학)교수=오는 30일부터 7월31일까지 자료수집차 미국방문

등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김성훈(국문·3) ▲전영헌(생물·1) ▲고성식(생물·4) ▲차재기(물리·3) ▲윤무열(화학·3) ▲이정원(경제·1) ▲김중곤(경제·2) ▲최의주(경영·4) ▲최욱진(무역·4) ▲이해선(영교·4) ▲김정은(영교·2) ▲정진경(가관·4) ▲최은희(식영·4) ▲전미영(의상·2) ▲주지희(한의예·1) ▲곽창규(한의본·1) ▲이문연(전한련부의장) ▲치대학생회 ▲양영종(치의예·3) ▲김선희(성악·1) ▲성악 1학년과대표 ▲이충희(기악·1) ▲류옥렬(체육) ▲최나선(무용·2) ▲최경환(국선관·204) ▲강성수(삼의원·320)

【수원캠퍼스】▲신성휴(영문·4) ▲김우정(불문·2) ▲정경미(불문·3) ▲김영순(일문) ▲윤정주(행정·2) ▲지영미(수학·2) ▲이성익(수학·3) ▲조영빈(물리·2) ▲이승준(환경) ▲민동원(환경·4) ▲이현호(기계·4) ▲오훈(섬유·4) ▲윤석현(전자·2) ▲한백검(전자·3) ▲박준희(섬유) ▲이강룡(전자·3) ▲이용석(전자·3) ▲최재호(전자) ▲최형우(화공) ▲박성규(전자·2) ▲구인환(건축·2) ▲김백중(건축·4) ▲박경삼(토목·3) ▲이재일(산공) ▲이성렬(산공·1) ▲최형산(산공·1) ▲차승준(산공·3) ▲김상우(원자·3) ▲김원수(식공·4) ▲김재영(농학·3) ▲현대용(산디·2) ▲윤선홍(원자조교) ▲노재현(조경강사) ▲이정림(임학조교) ▲chemu(화학과 동아리)

분실

습득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지갑=▲김성보(한의본·4) 검정색의 노란테두리 가죽지갑 ◆검정색 비닐가방=▲이정희(무용장 비서실) 6월4일 본관 2층 복도에서

【수원캠퍼스】◆단체복=▲빅탱(무주과 농구부) 지난 5월20일 자재 뒷편에서 단체복 26벌 분실 ◆가방=▲남정혜(무역·1) 노란(검정체크) 핸드백 지난 5월31일 학생회관 오른쪽 열람실에서 분실 ◆지갑=▲지영익(산공·4) 검정색 대동제기간중 분실 ▲김은주(건축·4) 검정색 지난 1일 강남행 스쿨버스안에서 ▲이이구(환경·1) 갈색 지난 5월31일 분실.

습득

분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검정색화일=The Art of Reading, 장학기계, 현대문학교양필독서가 들어있음 ◆의료보험증=▲변상철 ▲김태우 ▲통장=▲박광연 ▲강성제 ◆학생수첩=▲김미령(국문·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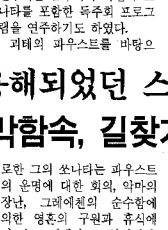
동문모임

승문·금란고 동문회

【서울캠퍼스】▲대천 남녀고·보령고 동문회=오는 19일 늦은 6시 회기왕족발 ▲승문고·금란고 동문회=오는 7일 늦은 6시 영커피숍

음악의 한길로 걸어온 생

내가하는 글부



전 영 혜
(음대교수·기악과)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는 19세기 낭만파 시대에 거명되는 모든 작곡가들—브람스, 쇼팽, 멘델스존, 슈만, 와그너—중 가장 화려한 음악가이며 요한 세바스찬도 출판되지 않았거나 초연되지 않은 곡들이 많은 특이한 작곡가이다.

다시말해 작곡가들로서의 리스트가 그의 가치만큼 훌륭하게 인정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인데 이는 그가 당대의 피아노 연주가로서의 명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면에서는 그의 중요한 곡들이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어 있지 못한 이유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일, 이년간 슈베르트의 가곡들을 바탕으로한 리스트의 개작곡(transcriptions)들로부터 시작한 나의 관심은 작은곡들의 모음곡인 크리스마스트리, 두개의 전설, 순례자의 연보, 3개의 사랑의 꿈, 녹턴, 후기 낭만파의 거봉인 B단조 쏘나타로 이어지며 리스트의 아름다움, 섬세함과 음악적 깊이에 심취하였다.

그래서 리스트의 곡만으로서 연주회를 꿈꾸다가 녹턴과 쏘나타를 포함한 독주회 프로그램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바탕으로한 그의 쏘나타는 파우스트의 운명에 대한 회의, 악마의 장난, 그레에첸의 순수함에 의한 영혼의 구원과 휴식에 이르는 거대한 교향시이다. 괴테의 작품에서가 아닌 내 자신의 열망과 환상을 음악안에서 꿈꾸며 영원의 구원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을 통한 가장 큰 나만의 기쁨이 아니었을까.

내가 위스콘신 대학교 유학시에 나를 지도해 주신 교수중 구나, 요한슨 선생님은 당시 일흔이 넘으셨던 분으로 리스트와 바하의 그 많은 곡들을 다 레코딩 하셨으며 그 외의 음악과 더불어 우아한 인품으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분이다. 세월의 흐름과 덧없음도 그의 음악안에서 용해되어 오히려 나이먹음과 더불어 그분 자체가 예술 작품처럼 돋보인던 것을 기억한다.

생각하면, 걸음걸이를 배우면서 시작된 음악에의 입문이, 고등학교, 대학교 동안의 기술적인 훈련을 거쳐서 유학생활을 통해 음악 전 분야에 걸친 지적인 성장과 이론적인 바탕을 연마하면서 한가지의 길로만 걸어왔던것, 그래서 이것이 나의 길이 된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 때로는 길없는 덩굴숙에서 헤매기도 했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길을 찾고 만들려고 수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젠 지고한 바하의 음악, 우아한 모짤트, 영적인 베토벤, 드뷔씨의 순수함, 쇼팽의 우울, 20세기 음악의 세련됨이 나의 음악속으로, 꿈과 환상으로 나를 설레이게 하고 있다.

'어렸을적에도 그랬고, 나이든 먼 훗날에도 그러할 것이며…' 나의 지나온 길이 보이는 시점에서 오늘도 추구할 아름다움을 꿈꾸어 본다.

음악에 용해되었던 스승 존경
갈등과 막막함속, 길찾기의 고난

朔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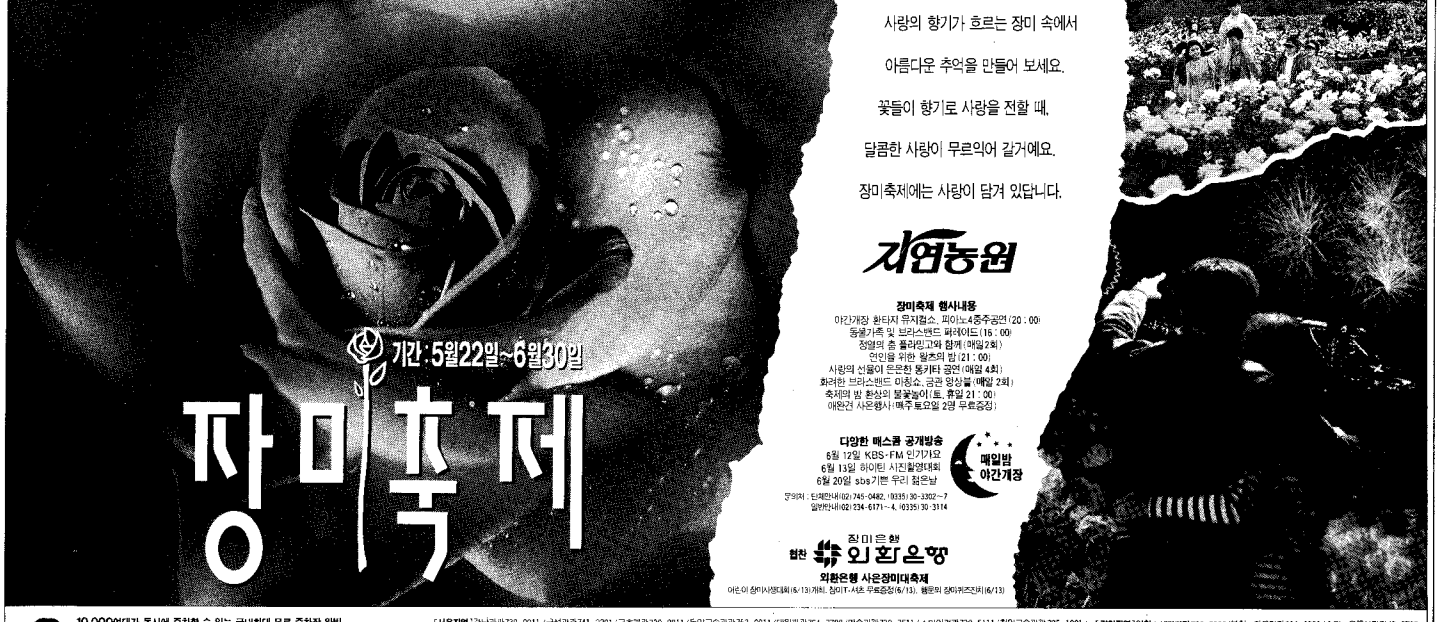
'돈까스'가 우리 입맛이 될 수는 없다

얼마전 한 여론 조사기관의 설문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스위스'를 응답한 사람이 1위를 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아마도 스위스라면 언뜻 떠오르길 그림같은 뾰족한 산장과 별장, 눈 덮인 아름다운 고원 알프스, 요들, 목동 등 낭만을 생각하는 때문일 것이다. 1970년대의 통계에서도 그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어 흥미롭다. 20여년전의 통계를 보면(조사 대상:국민학교 1천5백21명, 중학교 4백92명, 고등학교 4백28명, 한국교육학회조사 인용)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다'가 국민학생의 경우 57.7%인데 중학생은 12.6%, 고등학생 10.7%로 나타나 있다. 반면 고등학생은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스위스를 꼽았고 중학생은 미국을 들고 있었다. 중·고등학생쯤 되면 외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넓여져 객관적 안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국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돌이켜 보아야 할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다. 해방 후 병전 시대에는 그렇다해도 지금은 탈 냉전시대이며 그간 정치적 불안정에서 과생되어온 내부적 불안 요인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우리의 낙천적, 낭만적 성격을 드러낸 것 같다. 물론 새 정부 출범이 이제야 겨우 백일을 넘었지만…

그런데 며칠전 더욱 놀라운 보도를 보았다. 국민학생의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였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돈까스', 2위엔 '피자'라는 결과다. 과거 굶주린 세대들도 어린 시절에는 짝장면이 제일 먹음직스럽게 보였던 적도 있었으나 그 정도야 하며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김치'라는 사실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김치란 그 짠안의 맛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어느 집에 가던 김치 한 쪽을 먹어 그것이 내 입맛에 맞을때 다른 음식은 보나마나로 취급할 수 있었다. 새색시 역시 김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게 김치를 담을줄 알 때 비로소 주부로서의 자격에 올랐다고 할 수 있었다.

살림살이가 조금 여유있어 지며, 핵가족화 되며, 수퍼마켓에는 온갖 밑반찬들이 진열되어 있다. 편리에 따른 이용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김치도 만들어져 한포기, 반포기씩 팔고 있다. 대량 생산된 것이라 그 맛이 그 맛일 것이다.

한 짠안의 고유의 맛을 잃어가고 '레디 메이드'된 것에 익숙해져 갈 때, 더구나 국민학생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2,30년 후면 우리는 음식문화마저도 사대주의에 빠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여 걱정스럽다. 반만년 역사를 뽐냈적 강조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우리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실용적 단계로 옮기는 교육과 문화정책이 아쉽다 하겠다.

(植)